



동산불교대학이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견지동 동산법당에서 제1회 동산 염불스테이를 개최했다. 염불생활화를 목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 염불수행에 집중한다.



참가자들은 아미타48대원, 사성례, 천수경, 장엄염불 등을 읊었다.



염불스테이 내내 절을 하며 나를 비우는 참가자.



관상염불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 간절한 염불행자 목소리 부처님께 닿을까

## 동산불교대 제1회 염불스테이 현장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  
5시간동안 나무아미타불을 2만번이나 암송했다. 소리는 빈틈없이 20평 남짓한 공간을 잘게 채웠다. 중생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닿았을까. 도급된 채 곱 짝 앉고 앉아계신 부처님은 이 소리를 듣기는 한 것일까. 목이 쉬어져라 아미타불을 외면 부처님 조각상의 귀도 뚫릴 수 있을까.  
2월 둘째 주, 서울 견지동 동산법당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염송 소리가 오후 내내 끊이지 않고 울렸다. 재가자들의 염불수행을 이끌어 오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종현)이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동산 염불스테이'를 개최한 것이다.  
하루에 5시간씩 염불수행에 집중함으로써 염불을 생활화하자는 모토로 마련됐다. 염불의 대중적 보급에 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일일 템플스테이' 형식을 빌려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템플스테이와의 차이점이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템플스테이라면 염불스테이는 언제 어디서든 염불을 통해 극락정토를 이룰 수 있다.  
염불스테이는 동산불교대학이 진행해오고 있는 만일염불결사 일환이기도하다. 만일염불결사는 통일신라시대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758년 발징 화

상이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시작했다. 이후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사회 변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며 신앙의 구심점을 형성, 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산불교대에서는 1998년 하루 1000번 염불을 발원하며 시작했다.  
이미 17년차에 접어든 결사. 염불스테이는 만일염불결사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지난달, 6천일 회향을 하고 아직 회향까지 10년  
**1998년 시작된 동산 만일염불결사  
염불생활화 위해 '스테이' 형식 빌려  
2월 9~14일까지 하루 5시간 정진**  
이 남았다. 때문에 이번 염불스테이는 이제까지 결사에서 해오던 청명염불 대신 관상(觀象)염불법을 택했다. 관상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염불한다.  
이종현 이사장은 입재식에서 "아미타불의 48대 원 중에는 중생이 자신의 명호를 불러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면 자신 역시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이 있다"며 "아미타불의 공덕을 믿고 입심으로 염

불하면 삼매를 얻고 정토를 체험할 수 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에 집중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부처님 염하며 즉심즉불(卽心卽佛)  
염불행자 20여명은 매일 오후 3시부터 입재에 들어가 70분씩 하루 세 차례 염불을 외었다. 아미타 48대원 염송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성례, 천수경, 장



참가자들은 염주알을 돌리며 정근하기도 했다.

엄염불 등을 읊으며 수행에 나선 것이다.  
염불에는 중생이 삼계의 우물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두레박 같다는 통찰, 간절히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찰나에 무량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 모두 함께 성불하자는 발원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었다.  
아미타불을 찾는 것은 불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

짐일 터. 질병·미움·싸움·배고픔·더러움이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20여명의 불제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부처님처럼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절을 하거나 염주를 돌리면서 아미타불을 떠올렸다. 부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 눈, 귀, 코, 입, 목 등을 거쳐 발가락까지 아미타불의 상호를 한번 염불할 때마다 관했다.

오로지 들리는 소리라고는 목탁과 염송, 깨알같이 염주알 굴러가는 소리뿐. 청아한 목탁소리에 의지해 울리는 '나무아미타불'이 사방을 결계했고 염불은 1초의 머뭇거림, 주저함 없이 계속됐다. 70분 내내 이

## 아미타 부처 떠올리며 관상(觀象)염불 부처님과 포개지며 '나=부처' 깨달아 서로 염불보살 돼 보리심 일으켜

어지는 염불에 잠시 정신이 흐트러져도 여럿이 함께 내는 견고한 소리에 이내 망상이 수습된다. 혼자서 수행이 어려울수록 서로 염불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는 임형준(52)씨는 혼자서 하다보니 수행이 느슨해지고 자주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어 염불스테이에 참가하게 됐다. 여럿이 함께 염불을 외는 경험은 처

음이다. 그는 "서로를 고양시키며 염불하니 마음속 세상을 정리하기가 훨씬 쉽다. 집중시간도 늘었고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가자들에게 염불수행을 권하는 까닭은 쉽다는데 있다. 이영화(59)씨도 염불 수행의 장점으로 '마음의 안정'을 꼽았다. 염불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가벼운 우울 증세도 떨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산불교대학생 보설(55) 거사도 "관상염불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미타부처님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평소에도 부처님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표했다.

관상염불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미타불을 세밀하게 떠올림으로써 부처님과 물리적 거리를 단축, 그와 하나로 포개지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의 목적이다. 어쩌면 나와 10억 광년쯤 떨어져있을지도 몰랐을 부처님을 소환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작업일 것이다.

아미타불이 계시다는 극락세계에 있는 이들은 온전히 어린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다. 부처님을 한없이 부르며 그를 닮고자 하는 동산법당의 염불행자들은 순수한 동자승의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다.

다음 염불스테이는 8월로 예정돼 있으며 차츰 매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 1999  
**아제여행사**  
AJE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히말라야 고요왕국**  
복복지수 1위! **부탄 순례**  
부탄의 마인드 수련장, 사자의 새 둥지라 칭하며 수백년된 명왕국  
★확정★  
출발일 3월23일/4월10일/5월28일/6월19일

**THE SILK ROAD**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 교통로  
다코마로드 **실크로드 6일**  
돈황-우루무치-트루판  
출발일 4월13일

출발일 3월23일 **중남미 3개국 11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 6인출발기준 (4명화제) ₩679만  
출발일 5월4일 **중남미 3개국 12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 8인출발기준 ₩759만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리벳 8일"**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 시가제, 마나사르보호수, 수미산, 구계왕국  
출발일 5월29일/6월13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법계룡과 선재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리키, 그라노 9일**  
이탈리아, 카파도키아, 파르카리, 아테네, 미오스섬  
출발일 3월23일/6월5일  
**간경성기 구화상·항상 4일**  
출발일 4월9일/4월30일 ₩99만원  
**왕궁불탑의 나라 미얀마**  
왕궁-바간-헤호  
출발일 3월 21일  
**민족의 영 4대산·장승 5일**  
출발일 7월 21일, 7월 31일  
**국경의 섬 대산도 2일·3일**  
출발일 수시출발가능

출: 3월29일 **구화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지장보살(99m), 천하비경 황산, 불해란음상  
출: 3월29일 **봄의 도시 곤명 차마고도 여강6일**  
곤명, 태리, 여강, 상그리라  
출: 4월14일 5/19, 6/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현공사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출발가능:월/수/금  
진정한 리벳수행, 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 9월31일 **대만 공승제 5일**  
증래선사, 불광선사, 자제궁각회